

## 본당 소식

### 2025년 3월 교황님 기도지향 : 위기상황에 놓인 가정들

화목하지 못한 가정들이 용서를 통하여 그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서로의 다름 안에 서로 각자의 은사를 재발견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 미사 및 친교 나눔 이후 뒷정리를 철저히 합니다.

♣ 부활 판공성사 안내

- 판공성사 기간: 4월 13일(주일)까지. 미사 시작 15분 전 고해소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 구역별 사순시기 십자가의 길 일정 안내

- 십자가의 길: 매주 금요일 저녁 8시, 오라토리오

- 4월 4일(사순4주간): 청년구역

- 4월 11일(사순5주간): 암브로시오회

♣ 미사 전 성가 연습 안내

- 미사곡 변경으로 인한 전 신자 미사곡 연습

- 3월 30일 (주일) 10:30, 오라토리오

♣ 모임/회의

- 3구역 모임: 4월 5일(토) 10:00시(도착)

장소: Sacro Monte di Varallo, 45개 경당 기도 순례

주차장 주소: Piazzale Sacro Monte, 13019 Varallo VC, Italy

- 다른 구역 신자분들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 청년구역 회의: 다음 주일(4/6) 미사 후, 사제관

♣ 봉사자

• 계단, 화장실: 임근영 사무엘

♣ 지난 주일 우리의 정성

• 봉헌금 371.60€ • 교무금 600.00€

### 전례 성가

입당 : 118 (골고타 언덕)

봉헌 : 216 (십자가에 제헌되신)

성체 : 182 (신묘하운 이 영적)

172 (그리스도의 영혼)

파견 : 280 (성 요셉 찬양하세)

### 전례 봉사

이번 주일(3월 30일)	다음 주일(4월 6일)
1독서: 임근영 사무엘	1독서: 윤상돈 알렉산드로
2독서: 김윤경 모니카	2독서: 허희숙 마리아
복 사: 강윤이 스텔라, 문수빈 미카엘라	복 사: 안태오 마테오, 정이한 다윗

## 밀라노 한국 순교자 천주교회 CHIESA SANTI MARTIRI COREANI

Oratorio di San Rocco al Gentilino (Piazza T. Lucrezio Caro 7, Milano)

본당신부 : 조병진 베니노

·사목회장: 변의용 베네딕토 ·부회장: 김재의 미카엘 ·총무: 박건욱 레오  
·전례위원장: 이민찬 비오 ·성모회장: 김효경 릿타 ·외교위원장: 김산영 올리아  
·청소년위원장: 이승준 다니엘 ·청년구역장: 진하림 글라라  
·1구역장: 유정연 릿타 ·2구역장: 허희숙 마리아 ·3구역장: 강한 프란치스코

## 2025년 3월 30일 (자) 사순 제4주일

### 미사 전례

#### 본기도

하느님, 말씀이신 성자를 통하여 오묘하게 인류를 구원하셨으니 그리스도인들이 다가오는 파스카 축제를 열렬한 믿음과 정성으로 준비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화답송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맛보고 깨달아라.

○ 나 언제나 주님을 찬미하리니, 내 입에 늘 찬양이 있으리라. 내 영혼 주님을 자랑하리니, 가난한 이는 듣고 기뻐하여라. ◎

○ 나와 함께 주님을 칭송하여라. 우리 모두 그 이름 높이 기리자. 주님을 찾았더니 응답하시고, 온갖 두려움에서 나를 구하셨네. ◎

○ 주님을 바라보아라. 기쁨이 넘치고, 너희 얼굴에는 부끄러움이 없으리라. 가련한 이 부르짖자 주님이 들으시어, 그 모든 곤경에서 구원해 주셨네. ◎

#### 제1독서 (여호수아기 5,9-12.10-12)

그 무렵 9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서 이집트의 수치를 치워 버렸다.”

10 이스라엘 자손들은 길갈에 진을 치고,

그달 열나흘날 저녁에 예리코 벌판에서 파스카 축제를 지냈다.

11 파스카 축제 다음 날 그들은 그 땅의 소출을 먹었다.

바로 그날에 그들은 누룩 없는 빵과 볶은 밀을 먹은 것이다.

12 그들이 그 땅의 소출을 먹은 다음 날 만나가 멎었다. 그리고 더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만나가 내리지 않았다. 그들은 그해에 가나안 땅에서 난 것을 먹었다.

#### 제2독서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2서 5,17-21)

형제 여러분, 17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것이 되었습니다.

18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당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기신 하느님에게서 옵니다.  
19 곧 하느님께서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당신과 화해하게 하시면서, 사람들에게 그들의 잘못을 따지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화해의 말씀을 맡기셨습니다.  
20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절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권고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여러분에게 빚니다. 하느님과 화해하십시오.  
21 하느님께서서는 죄를 모르시는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죄로 만드시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느님의 의로움이 되게 하셨습니다.

### 복음환호송

◎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말하리라.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나이다. ◎

### 복음 (루카 15,1-3.11ㄴ-32)

그때에 1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모여들고 있었다.  
2 그러자 바리사이들과 율법 학자들이, “저 사람은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또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군.” 하고 투덜거렸다.  
3 예수님께서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11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었다.  
12 그런데 작은아들이, ‘아버지, 재산 가운데에서 저에게 돌아올 몫을 주십시오.’ 하고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들에게 가산을 나누어 주었다.  
13 며칠 뒤에 작은아들은 자기 것을 모두 챙겨서 먼 고장으로 떠났다.  
그러고는 그곳에서 방종한 생활을 하며 자기 재산을 허비하였다.  
14 모든 것을 탕진하였을 즈음 그 고장에 심한 기근이 들어, 그가 곤궁에 허덕이기 시작하였다.  
15 그래서 그 고장 주민을 찾아가서 매달렸다.  
그 주민은 그를 자기 소유의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다.  
16 그는 돼지들이 먹는 열매 꼬투리로라도 배를 채우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아무도 주지 않았다.  
17 그제야 제정신이 든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팔이꾼들은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에서 굶어 죽는구나. 18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지.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19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아버지의 품팔이꾼 가운데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20 그리하여 그는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멀리 떨어져 있을 때에 아버지가 그를 보고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그리고 달려가 아들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21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22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일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겨 주어라.

23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먹고 즐기자.  
24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도로 찾았다.’ 그리하여 그들은 즐거운 잔치를 벌이기 시작하였다.  
25 그때에 큰아들은 들에 나가 있었다.  
그가 집에 가까이 이르러 노래하며 춤추는 소리를 들었다.  
26 그래서 하인 하나를 불러 무슨 일이냐고 묻자,  
27 하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아우님이 오셨습니다. 아우님이 몸성히 돌아오셨다고 하여 아버님이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28 큰아들은 화가 나서 들어가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아버지가 나와 그를 타이르자,  
29 그가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여러 해 동안 종처럼 아버지를 섬기며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어기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저에게 아버지는 친구들과 즐기라고 염소 한 마리 주신 적이 없습니다.  
30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 아버지의 가산을 들어먹은 저 아들이 오니까, 살진 송아지를 잡아 주시는군요.’  
31 그러자 아버지가 그에게 일렀다. ‘애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고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32 너의 저 아우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러니 즐기고 기뻐해야 한다.’”

### 보편 지향 기도

1.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참목자이신 주님, 그리스도의 사절인 교회를 굽어살피시어, 세상 모든 이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과 화해하고, 죄를 멀리하며 의롭게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소서.
2. 세계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일치의 주님, 다양한 생각을 가진 세계의 지도자들에게 식별의 은총을 주시어, 갈등과 다툼을 경청과 대화로 풀어 나가며, 세상에 주님의 평화를 이루게 하소서.
3. 가난하고 병든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위로의 샘이신 주님, 가난으로 치료받지 못하는 이들을 몸소 돌보아 주시고, 주님의 손길이 저희에게 이어져 그들이 존엄한 삶을 살아가도록 돕게 하소서.
4. 우리 자신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진실하신 주님, 사순 시기의 재계를 지키고 있는 저희를 보살펴 주시어, 다가오는 파스카의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안에서 성실히 살아가게 하소서.

### 영성체 후 기도

하느님,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비추시니 은총의 빛으로 저희 마음도 밝혀 주시어 저희가 언제나 하느님 뜻에 맞는 것을 생각하며 하느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